

중단하라!



키리졸브/독수리(KR/FE) 군사연습!

‘맞춤형억제전략’ = 전쟁억제가 아니라 전쟁 유발!



올해 연습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(WMD)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 이는 전쟁위기를 억제/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,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공세 전략입니다.

국지도발대비계획

= 전면전 가능성 높이는 위험한 계획!

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는 국제법상 ‘비례성의 원칙’에 위배되는 불법 대응이자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게 될 위험천만한 전략입니다.

북한 급변사태 대비/유도 사상 최대규모 평양 점령 상륙훈련까지

한미당국은 ‘북한변화유도’ (2014.1.6 한미외교장관회담)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올해 3월말 연습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최단 시간 내 평양 점령을 목표로한 냉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진행합니다.

또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등 특수전 훈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민사작전에 참가했던 미 본토 1기갑사단이 경기북부에 배치된 것도 북한 급변사태(북한 정권 붕괴)를 대비/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.



다시 시작하라!



한반도 비핵화 · 평화협정 대화를!

이산가족 상봉,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

우여곡절 끝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,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런 와중에 남북대결을 격화시킬 대규모 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,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대결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.

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, 남북 · 북미 ·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시작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핵을 동시에 폐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.



키리졸브/독수리 군사연습 멈추고, 한반도에 평화를!

1992년 냉전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해빙 무드 속에서 한미연합 팀스피릿연습이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다.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상호비방 ·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라도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을 중단하여 상호 대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.



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어야
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막아내고
동북아 평화 실현할 수 있어



박근혜의 통일대박?
북한변화유도, 흡수통일 노린다면
썩박!!



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
평화와 통일을!